

한국심리학의 발전과정과 현재

차재호*

이 글에서는 현대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란 학문의 한국에서의 발전을 조감도적으로 살펴보고 이어 한국심리학의 현황을 적어두기로 한다. 한국심리학의 역사를 다룬 논문은 여럿 있으나 여기서는 한국심리학회가 편찬한 《한국심리학회 50년사》(한국심리학회, 1996) 한 권만을 들어둔다. 다른 논문들에 관한 정보는 거의 빠짐없이 이 책에 수록되어 있다.

1. 심리학의 한반도 상륙

현대적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 한국에 도입된 시기는 1900년경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알려져 있는 최초의 심리학책이 金夏鼎이란 사람이 번역한 “心理學教科書 全”이란 책인데, 이 책은 1907년 꺾이다. 또 1908년에는 동경유학생의 한 사람인 韓興教라는 사람이 동경유학생 잡지에 “心理學의 精要”란 글을 기고했다. 여기서 보듯이 일본대학에 유학하고 있던 사람들이 먼저 심리학 강의나 서적에 접했던 것이다. 또 선교사들이 세운 국내의 전문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미국인 교수들이 심리학을 강의하면서 심리학을 우리나라에 소개했다. 현재 알려져 있는 최초의 심리학 강의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여자학당 幼稚園 師範科에서 1917년 있었는데, 이 강의를 담당한 사람은 아펜셀러女史였다. 연희전문학교에서는 1920년대에 李灌鎔(Zurich大 철학박사)이라는 사람이 일본 교과서를 사용해서 심리학을 강의했다. 그의 박사학위논문 제목이 “意識의 기본사실로서의 意志”인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명예교수. cha1001@intizen.com

점으로 미루어 심리학 전공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다. 중앙대학 쪽에서는 韓國史學者 洪以燮 교수의 부친인 洪秉璇이 1922년 무렵부터 20년대 말까지 中央幼兒師範科에서 兒童心理學을 가르쳤고, 1922년에는 “兒童心理學”이란 책을 썼다. 당시 유아사범과(유치원 보모 교육기관)들에서는 심리학이나 아동심리학 강의가 필수적인 것으로 통용되어 있었다.

20년대에 심리학 교육이 가장 왕성했던 곳은 일본치하에 새로 설립된 사범학교들이었는데, 京城師範에서는 심리학 전공학자가 특히 많았다. 물론 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일본인들이었다. 1924년에 京城帝國大學의 豫科 교육이 시작되면서 심리학 교육은 한층 본격화되었다. 왜냐 하면 이 예과는 한국 내 유일한 正規大學의 예비과정이고 엘리트들의 집결지였기 때문이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J. C. Hulbert(Columbia大 교육심리학 碩士)와 韓稚振이 전후해서 이화여전에서 심리학 강의를 했는데, 후자는 1933년에 “新心理學概論”이란 책을 펴내기도 했다. 中央大(당시 中央保育學校)에서는 1934년부터 후에 고려대 총장을 지낸 李鍾雨(京都大 출신)가 철학과 심리학을 강의했다. 30년대 이후에도 전문학교나 사범학교에서의 심리학 교육은 계속되었다. 1926년에는 京城帝大의 본과에 해당되는 法文學部和 醫學部の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法文學部 哲學科 속에 있던 心理學 專攻이 시작되면서 심리학 활동의 중심무대가 경성제대로 옮겨가게 되었다. 나중에 보겠지만 교수진이나 연구시설에서나 학생의 질면에서 다른 학교들은 경성제대의 비길 바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경성제대의 심리학 정공을 한국심리학의 시작으로 보기는 힘들다. 왜냐 하면 경성제대의 교육이나 연구는 日帝 治下의 교육이고 연구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1910년대나 1920년대에 사립 專門學校나 保育學校에서 제공된 심리학 강의들이 韓國心理學의 시초가 될 수도 없다. 이들은 정규대학 수준 이하의 교육이었고, 무엇보다 이런 곳에서의 심리학 교육이 해방 후의 심리학 발전에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떻든 1910대에서 해방 전까지 심리학 강의는 일본대학 재학 중 심리학에 접한 사람이나 전문학교의 미국인 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에 전달되었다. 20년대에서 30년대에 걸쳐 소수의 한국인들이 京城帝國大學에서 일본인 학자들을 통해 심리학을 전공하게 되는데, 이들이 해방 후 韓國心理學의 설립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경성제대의 초대 총장이었던 하야미(速水) 교수가 이 심리학자였다는 것이다. 경성제대 개교에 앞서 당시 49세였던 그는 독일의 베르린대학에 유학하여 그곳에 있던 形態心理學의 핵심인물들(Wertheimer, Köhler, Lewin 등)과 교분을 쌓았다. 이들 중 가장 연장자인 Wertheimer는 당시 45세였고 Köhler는 38세였다. 이들의 도움을 얻어, 그는 귀국하기 전에 새로 생길 대학의 심리학연구실(실험실) 설계도를 받고 또 심리학연구실에 비치할 도서도 구입목록도 얻었다. 귀국하자 그는 바로 경성제대 본과의 法文學部長을 맡아 심리학실험실을 건물설계에 반영했고 건물이 서면서 동시에 실험시설 설치와 도서구입을 완료했다. 10년 뒤에는 경성제대 初代 總長으로 추대되었다.

2. 韓國心理學의 始作

사회과학분야 중에서 한국의 심리학은 다른 분야보다 일찍 한발 앞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제기 1926년에 개교한 경성제국대학 본과에는 출범 당시 이미 “심리학 전공”이 哲學科 안에 설치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에는 東洋最高라고 일본인도 인정하는 心理學實驗室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¹⁾ 물론 이것이 “한국심리학”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

1) “朝鮮半島에서의 유일한 國立大이기도 했던 京城帝國大學으로 말하면, (일본)政府도 그 출연기관이었던 朝鮮總督府도 상당히 힘을 기울였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당시 東大(東京大)나 京大(京都大)에도 心理學 講座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京城에서는 최초부터 2講座가 설치되었었다. 연구실도 實驗室, 講義室, 圖書室, 實驗機械室, 工作室 등 크고 작은 15개의 방으로 구성된 훌륭한 것으로 당시의 東大나 京大의 研究室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다”(아마노(天野利武) 박사의 회상). 정한택, 1982, 《한국심리학 60년사》, 박영사, p. 38에서 재인용. “경성제국대학의 심리학연구실에는 당시 심리학 전공을 하는 학생 수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연구실의 규모나 설비의 충실도로 말하면 당시 일본의 대학의 심리학연구실 가운데서 최고 수준이었다.” 정한택, 1982, 《한국심리학 60년사》, 박영사, p. 222.

단층 철근 콘크리트건물로서 약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합하여 대소 18실의 實驗室, 연구실, 圖書室, 工作室 등이 있고 配電, 蓄電의 설비도 당시로는 일류였다. 특히 防音室의 구조는 당시의 心理學研究室로서 最高라고 생각한다. 또 寫眞, 映畫專門技師를 위하여

지만 1926년에는 최초의 한국인 심리학자가 된 任哲宰가 예과를 졸업하고 학부로 진학했고(2회 졸업) 그 뒤를 이어 尹泰林(3회 졸업), 李鎭淑(5회 졸업), 李義喆(10회 졸업), 李本寧, 徐明源 등이 차례로 심리학 연구실에서 수학을 했다. 이진숙은 졸업 후 연구실 助手로 임명되기도 했다.

해방이 된 이듬해 연초, 정확히 말하면 1946년 2월 4일(舊正은 2월 2일로 토요일이었음) 임석재, 이재완, 이진숙, 방익모, 성백선, 이본녕, 그리고 고순덕의 7인이 모여 朝鮮心理學會를 결성했는데, 이것이 현재의 韓國心理學會의 모체이다.

이 모임에 참석한 이들 이외에 당시 해방된 남한 땅에는 심리학 전공으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윤태림, 이의철, 그리고 서명원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해방됐던 당시 남북한을 통털어 한국(남한)에는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10여 명이 있었던 것이다. 이들이 한국심리학을 창시한 심리학의 원로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역사란 것이 이렇게 분명한 것은 아니다. 조선심리학회를 발족시키거나 바로 뒤에 입회한 사람들이 모두 일본 식민정부 하에서 신식(서양) 심리학을 배운 사람이다. 그런데, 한국의 역사 속에 심리학적 사상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물론 서구적인 의미의 과학적 연구는 없었지만 적어도 인간심리에 대한 사색은 있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선조 중기에 있었던 유학자간의 四端七情 논쟁이다. 시작은 중국에서 나온 것이고 원래가 修養이나 治國과 같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심리학과 약간의 관계는 있다. 이런 유학자들의 논쟁은 한국의 전통사회 속에 心理思想이라 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었다. 해방 후에 출발한 심리학은 이런 전통적 흐름과 단절된 채 출발을 했다. 그렇다고 이런 논쟁이 새로운 심리학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단지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한국인 가운데도 인간심리에 관해 사색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解放 후에 한국심리학을 주도한 것은 처음에는 이들 일제 하에 정규대학을 나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한반도에는 이들이 해방 후 대학 교단에 서기 전에 심리학이 소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일제 하에 이들이 아직 고등학생이

동쪽에 인접해서 단층 木造의 別棟 寫眞室(50평)을 건립하였다.” 정한택, 1982, 《한국심리학 60년사》, 박영사, p. 29에서 재인용.

나 대학생이었던 당시 많은 전문학교 수준의 학교에서는 심리학 강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3. 解放 直後의 韓國心理學

해방 직후 한국에 있던 심리학자들에 대해 좀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우선 그들은 요즘의 기준으로 심리학자로 보기에는 학업의 심도나 연구경험이 많지 않았다. 일본의 차별로 인해 이들에게는 일본의 우수한 대학을 나오기도 계속해서 대학 안에서 연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해당 당시 대학연구실의 助手 경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李鎭淑과 高舜德, 둘뿐이었다. 전자는 30년대에, 후자는 40년대에 京城帝大 心理學研究室에 조수로 근무했다. 李義喆은 1938년부터 1940년 3월까지 경성제대 대학원을 수료했다. 나머지는 그런 경력도 없이 회사나 중학교 등 직장에서 근무하다 解放을 맞고, 바로 대학교수가 되었던 것이다.

경성제대는 해방과 동시에 “帝國”이란 명칭이 빠진 京城大學으로 바뀌었다가 1946년 9월 출범한 국립서울대학교에 흡수되었다. 이때 독립된 心理學科가 文理科大學 안에 설치되었다. 이로서 심리학이 철학에서 독립해 독자적 학문분야로서 한국 대학에 자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 美 軍政廳 문교부의 고문으로 와 있던 廉光燮 박사(Chicago大 출신 心理學 博士)²⁾와 같은 사람의 입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심리학이 철학과 진작부터 독립한 과학으로 통하던 미국을 대표하는 美 軍政廳으로서 심리학을 독자적 학문분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였을 것이다.

1946년 9월에 서울대에는 심리학과가 생겼지만, 아직 종합대학이 되지 못한 私立大學들은 심리학 전공을 두는데 만족해야 했다. 이런 상태³⁾가 6·25동란 발발 당시까지 지속되었다. 1951년 12월에 이화여자대학에 심리학과가 사범대학 안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도 이미 1946년에는 두 심리학자가 자리를 잡고 있었

2) 그는 초대 서울대 副總長이기도 했다.

3) 中央女子大學은 1947년에 보육학과 안에 심리학 전공을 열었고, 梨花女大 師範大 教育學科 안에 심리학 전공이 생긴 것은 1949년 4월이다.

다. 서울대에서 간 高舜德과 중앙여자대학에서 간 李義喆이 그들이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쪽에서의 동향을 보면 1945년 12월에 李鎮淑은 경성대학 예과의 교수가 되었다. 심리학과가 창설되면서 여기에는 이진숙 외에 고순덕과 이본영이 합류했다. 이들 중 가장 먼저 고순덕이 앞서 본 바와 같이 1946년 이화여대로 떠나고(이화여대 대학원장을 맡은 그는 한동안 서울대에 교수직을 겸했다. 겸직은 당시 흔했다). 이어 1947년에는 이본영이 심리학과를 떠나 중앙여자대학(다음 해에 중앙대학으로 됨)⁴⁾으로 가고, 1949년에는 이진숙이 서울대 심리학과를 떠났다. 그래서 1949년 무렵에는 심리학과와 교수가 모두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延大를 사직하고 귀향해 있던 成百선이 서울대 심리학과에 유일한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는 이 자리를 6·25동란 중에까지 지켰다. 서울대 사범대학에는 해방 직후 任哲宰와 李載琄이 포진했다.

4. 6·25動亂과 그 直後

事變으로 인해 서울의 대학들은 일시적으로 人共治下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때 북한 측과 협력한 것으로 알려진 이본영이 북한군의 철수와 동시에 월북했고, 이재완도 북한에 넘어가(다분히 납치로) 2명의 심리학자를 잃게 되었다. 1953년 무렵에는 대학들이 환도하여 서울로 돌아왔는데, 이 무렵에 대학에 안착한 교수들이 연달아 자리를 바꾸는 현상이 벌어졌다. 그것은 1950년대 초에 새로운 심리학과가 이화여대, 서울대 사범대, 중앙대, 그리고 성균관대에 차례로 생겨나고, 1960년대 초에는 고려대 심리학과와 서울대 학생지도연구소가 개설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성백선은 해방 후 연세대에 있다가 낙향, 1949년 서울대에 부임하고, 이어 1951년 성균관대로 갔다가 1955년 고려대에 정착했다. 숙명여대에서 교수직을 시작한 방현모는 동란 중에 중앙대 논산분교로 갔다가, 1955년 성균관대에 정착했다. 해방 후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조수로 있던 서명원은 48년 이화여대 교수로 갔다가 미국유학에서 6·25 직전 귀국해서 서울대 사대(교육학과)로 갔

4) 보육학과 내에 심리학 전공이 마침 생겨 그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다. 두 번 정도 자리바꿈을 한 사람은 더 많다. 잦은 자리바꿈은 1960년 초까지 계속되었다.

5. 50년대의 심리학과

1950년대 전반의 심리학과들을 살펴보면 서울대 문리대의 심리학과(46년~), 이화여대의 심리학과(51년~), 서울대 사범대학의 교육심리학과(53년~), 중앙대의 심리학과(53년~), 그리고 성균관대의 심리학과(54년~)의 5개학과가 존재했다.

서울대 심리학과. 서울대 文理科大學 心理學科는 창설과 더불어 李鑣淑, 李本寧, 그리고 高舜德의 3명의 조교수와 막 경성대를 졸업한 조수 徐明源으로 출발했으나, 이들이 차례로 문리대 심리학과를 떠나 1949년에는 마지막으로 이진숙이 이 학과를 떠나게 되었다.⁵⁾ 교수가 모두 사라진 학과에 연대에 있던 成百善이 들어와 혼자 6·25동란 중까지(1949~1950) 학과를 지키다가 북한군이 철수하면서 성백선이 떠나고, 1951년에는 부산 피난 중인 심리학과에 이진숙이 돌아와 그가 1962년 사망할 때까지 학과를 이끌었다. 환도한 후 54년에는 해방 후에 문리대 심리학과를 나온 張秉琳이 교원으로 학과에 합류했다.

이화여대 심리학과. 이화여대에는 1946년부터 고순덕과 이의철⁶⁾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1948년 고순덕이 그의 첫 번째 미국 유학에 오름에 따라 1946년 京城大를 졸업한 서명원⁷⁾이 이화여대로 옮겨왔다. 그러나 당시 심리학과는 아직도 전공

5) 이진숙은 49년 배를 타고 미 군정청의 지원으로 미국 유학 길에 올랐는데, 갈 때 자신의 지병인 TB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X-ray 사진을 품고 갔다가 미국 상륙 직전에 탄로나 본인은 바로 송환조치 되고, 날조에 관여한 서울대 의대 교수도 해직되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수십 년간 서울대 병원의 X-ray는 미 대사관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6) 이의철도 1946년부터 1952년 중앙대로 옮기기까지 이화여대에 재직했으나, 이화여대 심리학과 50년(1999)에는 서명원과 이의철의 이름이 올라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심리학 전공 교수로 부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7) 1941년 1월 학도병 지원 거부로 경성제대에서 체명되었다가 1945년 10월에 경성대학에 3학년으로 복학했다. 그리고 1948년 8월까지 서울대 문리대 심리학과 의 조교로 근무했다.

으로만 존재했다. 이화여대 심리학과는 1951년 말에 승인이 나서 실질적으로는 1952년부터 기능을 시작했다. 이화여대의 경우도 중앙대와 마찬가지로 학과가 시작되기 전에 심리학 전공이 먼저 생겼다. 서명원도 심리학 전공이 생기기 전인 1949년 3월에 미국 유학을 떠났고,⁸⁾ 미국서 교육학 박사가 되어 돌아왔을 때는 전공이 바뀌어 심리학계를 아주 떠나게 되었다. 고순덕은 2년의 심리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6·25동란 발발 직전에 대학에 복귀하면서 부산피난 캠퍼스에 심리학과를 설립했다(51년 12월). 학과의 환도 후 1954년에는 이의철이 中央大學으로 떠나고 朱東惠(이화여대 졸업생)과 金基煥(서울대 심리학과 졸업생)이 교수로 부임했다.

서울대 사범대 교육심리학과. 이 학과에는 1946년부터 任哲宰와 李載琬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6·25동란을 겪으면서 이완재가 북으로 가게 되고, 그가 비운 자리를 尹泰林이 메웠다(1952년). 같은 해 鄭範謨가 미국유학에서 돌아왔고, 다음 해(1953년)에는 부산에 피난해 있던 사범대 안에 교육심리학과가 생겼다. 그래서 당시 이 학과에는 任哲宰, 尹泰林, 그리고 鄭範謨의 3인이 자리하게 되었다.

중앙대 심리학과. 중앙여자대학으로 있었던 1947년에 이 대학의 保育科 안에 심리학 전공을 두고 있었는데, 이때 심리학 전공자를 가르친 것은 서울대에서 방금 넘어온 李本寧이었다. 이본녕이 월북하고 난 뒤인 1951년부터는 李義喆과 金泰午(중앙보육학교 때부터 부교장, 부총장을 역임)가, 그리고 1952년부터는 尹泰林(서울대 사범대 교수로서 겸직)과 方顯模의 4인이 심리학 강의를 담당했지만, 중앙대가 종합대학교가 된 그 해 출범한 심리학과에는 李義喆과 方顯模만이 남아 있었다. 1954년에 해방 후 졸업생 제1세대인 鄭良殷이 이 학과에 합류했다.

성균관대 심리학과. 성대에는 6·25동란이 발발할 때까지 심리학자가 없다가 1951년에 서울대에서 물러난 成百선이 도착해서 서울 환도 후인 1954년 심리학과를 발족시켰다. 그러나 成百선이 1955년 고려대로 떠나면서 그 자리에 중앙대에 있던 方顯模(方翊模)가 차지했다.

8) 이진숙과 같은 케이스로 유학 길에 올랐다.

6. 1950년대 후반의 심리학과

1954년까지 전국에 심리학과는 서울대 문리과대학의 심리학과(1946), 이화대학의 심리학과(1951), 중앙대의 심리학과(1952), 그리고 성균관대의 심리학과(1954)의 4개학과가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1950년 후반에는 새로운 심리학과가 생기지는 않았으나 해방 후 배출된 젊은 교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해방 후 제1세대가 교단에 등장한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해방 후 졸업자로 가장 먼저 장병림과 정범모가 각각 서울대 심리학과와 서울대 교육심리학과에 입성했고, 1954년에는 이의철 만이 남은 중앙대에 鄭良殷이, 이화여대에서는 원로교수들이 모두 떠난 자리에⁹⁾ 朱東惠와 金基煥이 1954년 새로 부임했다. 하지만 주동혜가 약 5개월 만에 유학을 떠나고 같은 시기에 고순덕이 그의 두 번째 유학 길에 오름에 따라 1955년에는 金聖泰가, 그리고 다음해에는 朴昌鎭이 학과에 합류했다. 이들은 주동혜를 제외하고 모두 서울대 문리대 출신들이었다. 그러나 55년에는 이화여대 출신의 閔善泓이 조교로 부임했는데, 그녀는 1959년 서울대 사범대 출신인 金在恩, 田贊和와 더불어 심리학과 교수로 임명되었다. 문리대 심리학과 출신들이 떠난 자리를 서울대 사범대 출신과 이화여대 출신들이 메꾸기 시작한 것이다. 1960년에는 朴昌鎭이 독일로 유학을 떠나면서 문리대 출신의 李璿仁이 부임하고, 閔善泓이 1961년 초에 사직하면서 서울대 사범대 출신인 黃應淵이 부임했다. 황응연이 부임하기 한 달 전 梨大 心理學科는 학교정비작업의 일환으로 教育心理學科로 이름이 바뀌었다.

延大에는 서울에 있는 주요대학으로는 가장 늦게 심리학과가 설립되었다. 아직 학과가 없는 延大에 1958년 미국에서 교육학과 박사학위(57년)를 가지고 귀국한 金基錫이 자리를 잡고, 곧이어 서울대 사범대 교육심리학과에 합류했다.

많은 다른 교수와 마찬가지로 金基錫은 한동안 연대와 서울대 겸직을 유지했다. 서울대 사범대 소속인 尹泰林은 1959년에서 1965년까지 연대 교육대학원장을

9) 고순덕은 54년에 재차 유학 길에 올라 Harvard대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나 귀국하지 않았다.

겸하다가 淑大 총장으로, 다시 慶南大 총장으로 나갔다. 서울대 사범대에 해방 직 후부터 있던 任皙宰는 1954년에서 1959년까지 淑明女大 교수직도 겸했다. 윤태림은 1950년대 말부터 교육행정가로 활동해 사실상 심리학계를 떠났다. 임석재는 대학 1967년부터 중앙대 대학원 심리학과를 맡아 수년 그곳에 있었지만 그는 1958년부터 韓國文化人類學會의 초대 會長, 1982년 國學會 會長, 1983년에 比較民俗學會 顧問, 그리고 1984년부터 두 번째로 韓國文化人類學會 會長을 지내는 등 점차 民俗學 쪽으로 기울어갔다.

成均館大에서 高麗大로 자리를 옮긴 성백선은 1960년 高麗大에 교육심리학과를 설립했다. 이 학과는 1963년 심리학과가 되었다. 성백선은 成均館大에 이어 高麗大에 심리학과를 세우는 업적을 남겼다.

7. 60년대의 변화

60년대 초에 軍事政權이 들어서면서 한때 심리학과가 廢科되어거나 교육학과 같은 곳에 병합되는 일이 있었지만 바로 부활되었다. 1960년에는 고려대에 교육심리학과가 생겼다가 1962년에는 이것이 교육학과와 심리학과로 분할됨으로써 고려대 심리학과가 생겼다. 이렇게 해서 1962년 무렵에는 서울대 문리대 심리학과, 중앙대 심리학과, 성균관대 심리학과, 고려대 심리학과, 이화여대 교육심리학과의 5개학과가 존립했다. 60년대는 또 大學院 教育이 본궤도에 오른 시기이기도 하다. 1965년서부터는 매년 8명 이상의 碩博士가 5개 학과에서 배출되게 되었다.

1962년에는 서울대 學生指導研究所가 생겼다(대학생활문화원의 전신). 이 기관은 서울대 사범대의 교육심리연구실을 제외하고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된 유일한 곳이다. 이 기관은 또 여러 심리학과나 교육심리학을 나온 젊은 학도가 대학원 수준의 수련을 쌓으면서 사회로 진출할 때까지 대기하는 중간 정류소의 역할을 했다. 특히 상담심리학의 성장의 토대가 되었다. 이 연구소에 흘러들어온 젊은 학도들은 해방 후 제2세대로서, 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대학원 학위(석사)를 받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외국 유학도 연속적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 한국심리학의 元老들은 학부 학력이 전부였다. 해방 후 제1세대도 몇몇을 제외하고 모두 대학 4년

의 학력만 가지고 대학교수가 되었었다.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방 제1세대는 대학 후 약 5년 만에 대학교수가 된 반면 제2세대는 학부 졸업 후 약15년이 걸려 대학교수가 되었다.

8. 70년대의 변화

70년대 초에 서울여자대학에 교육심리학과가 신설 되었고(1970년), 한때 폐과되었던 성균관대의 심리학과가 1972년 12월에 산업심리학과로 부활됐다. 1975년 冠岳캠퍼스로 이전하면서 綜合化를 이룬 서울대 심리학과는 문리대 때의 6명의 교수¹⁰⁾가 11명으로 늘어났다. 서울대 여러 기구 안에 흩어져있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 결과이다.

70년대에 많은 해방 후 제2세대(50년대 대학 입학)들이 교수직에 오르게 되는데, 이들은 거의가 박사학위를 지니고 있었거나 나중에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의 대다수가 외국대학에 유학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다. 70년대에 들어와 교수들의 학과를 전전하거나 겸임하는 현상도 차차 사라지게 되었다.

1978년은 심리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해로 기억되어야 한다. 그 이전까지 있었던 심리학과, 교육심리학과, 또는 산업심리학과는 모두가 서울 안에 분포되어 있었다. 그런 상태가 32년간이나 지속되다가 갑자기 1978년을 기점으로 地方大學에 심리학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70년대 말까지 7개의 지방대 심리학과가 신설되었다. 가장 먼저 생긴 것이 全南大, 카톨릭大, 그리고 釜山大였다.

이렇게 學科數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教授人力 需給에 문제가 생겼다. 이제까지 교수요원은 주로 서울대가 공급하고 있었는데,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게 되자 大學 밖 職場에 진출해 있던 심리학자들이 대학으로吸引되어 사회에 진출해 있던 心理學 應用分野 직장이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때마침 博

10) 1974년 12월 문리대 심리학과가 없어질 당시 학과에는 李義喆, 張秉琳, 鄭良殷, 鄭漢澤, 曹大京, 그리고 車載浩가 있었다.

士學位를 배출하기 시작한 高麗大와 成均館大 출신이 教授職에 상당수 진출하게 되었다.

9. 80년대와 90년대의 변화

심리학과 의 증설은 8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1983년까지는 10개가 더 설립되었는데, 이 중 2개(延世大, 淑明女大)를 제외하고 나머지 8개가 지방대학에 설립되었다. 80년대 말까지 심리학과 수는 25개로 늘어났다. 1978년 이전의 6개 학과와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 되었다.

90년대에도 학과의 증설은 계속되어 1996년 9월까지의 학과가 6개 더 늘어 31개가 되었다. 1990년도에 심리학과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그 뒤 “한국심리학회 50년사”를 위한 1995년 조사와 비교하면 1990년에는 교수 수가 학과 당 평균 4.9명이었는데(차재호 등, 1990), 90년에 있던 학과들의 교수 수가 1996년에는 학과 당 5.8로 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년 사이에 교수 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지만 학과 당 6명이란 수치는 아직도 학과들이 教授數면에서 영세했음을 보여 준다.

90년대에는 심리학과들이 特性化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 일환으로 1990년부터 “산업심리학과”라는 명칭을 가진 학과들이 여럿 나타나게 되었다. 과거 1971년에 유일하게 성균관대의 심리학과가 경영대에 속한 産業心理學科로 모습을 바꾼 일이 있지만 90년 이후에 생긴 6개 학과중 실로 4개가 산업심리학과로 출발했다. 이것은 학과 설립 인가를 쉽게 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고, 또 기존의 학과들과 자체를 차별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생긴 결과이기도 있다.

1996년 당시 주로 6개 대학의 심리학과가 박사학위를 배출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서울대(심리학과)(44명), 고려대(40명), 이화여대(22명), 중앙대(22명), 성균관대(18명), 그리고 연세대(12명)이다(괄호 속은 이제까지 배출한 박사학위 수). 이 무렵도 젊은 심리학자가 미국이나 독일 등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경향은 계속되었다. 특히 서울대 출신에게서 그런 경향이 강했다. 1996년 9월 당시 31개의 학과 중 석사과정을 가지고 있는 학과가 22개이고 박사과정을 가지고 있

는 학과가 12개였다.

10. 한국심리학회 의 변천

앞서 본 것 같이 한국심리학회는 1946년 초에 결성되었는데, 처음에는 朝鮮心理學會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다.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그해 11월에는 명칭을 大韓心理學會로 했다가 환도 직후 1953년 3월 이진숙의 제안으로 한국심리학회로 이름을 고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시 서울대 심리학과 과장으로 있던 이진숙은 뭇이든지 과장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여 “大”자를 기어코 떼어버린 것이다.

필자가 學會書記로 일하던 1956년 무렵에는 약 20명의 회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학회 활동은 주로 월례발표회를 열어 한 두 사람이 발표를 하고, 끝나면 조철한 국밥집 같은데서 저녁을 함께 하는 것이었는데, 이때 모인 인원은 10명을 넘지 않았다. 자주 모인 사람은 임석재, 윤탈림, 이의철, 성백선, 방익모, 김기환, 정양은, 김성태, 박창진, 전용신, 김기석, 강인덕, 김종협, 민선홍 등이었다. 가장 젊은 사람들로서는 서울대 문리대 출신의 정양은, 김성태, 박창진, 전용신, 서울대 사대의 김기석, 중앙대 출신의 강인덕과 김종협, 이화여대의 민선홍 등으로 당시 전임강사, 강사, 연구원, 또는 대학원생 급이었다. 월례회는 문리대, 사범대, 이화여대, 중앙대, 고려대 등을 돌아가면서 모였다.

군사정권이 들어서 모든 학술단체가 일시적으로 해산되었는데, 심리학회는 1963년 5월에 재발족을 위한 회원총회를 서울대 문리대에서 열었다. 이때 새로 선출된 학회장은 李義喆인데, 그는 3번 회장직을 연임한 초대 회장 任皙宰, 그 뒤를 이은 李鎮淑과 尹泰林에 이어 네 번째 회장이었다.

1964년 11월에 임상심리학 분과회와 산업심리분과회가 학회 내에 설립되었는데, 당시에는 운영세칙에만 “총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분과를 설치하여 연구활동을 한다”라는 것이 표시되어 있을 뿐이었다. 분과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학회에 이사회를 두는 규정을 만든 때는 1974년이다. 이 때에는 그밖에 임원회, 확대임원회, 분과회, 상임위원회, 임시위원회 등 기구를 두는 것도 회칙으로 정했

다. 현재의 학회의 틀은 그때 만들어진 것이다.

학회의 회원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1950년대의 약 20명에서 1964년에는 71명, 1983년에는 248명, 1987년에는 360명, 1994년에는 766명, 1996년에는 1,126명으로 커졌다. 양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도 있었다. 1970년대부터 주로 미국에서 유학한 심리학자들이 국내에서 활동을 개시하면서 각 분야에 진정한 의미의 전문가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 이전의 심리학자는 제대로 된 자신의 전공 분야를 갖지 못했었다.

1998년에 임석재가 元老 心理學者중 마지막으로 사망했다. 2005년 현재, 해방 제1세대 심리학자들 중 몇몇도 이미 세상을 떠났다. 해방 제2세대는 이미 퇴임했거나 하고 있는 중이다. 2006년에 한국심리학은 환갑을 맞이했다.

11. 한국심리학의 현황

2005년 말 현재 한국심리학회는 국내 심리학자의 유일한 조직체로 존재한다. 2005년 말 현재 심리학회 회원 수는 3,314명이었는데, 2005년 말 8월 말 기준으로 정회원이 1,921명, 준회원이 1,314명(합계 3,238명)이었다. 이들 중 박사학위를 소지한 회원이 645여 명이었다. 심리학과 석사 이상이면 정회원 자격이 있는데, 준회원 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주로 상담심리 분야에서 현지의 상담원들을 흡수했기 때문이다. 또 회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회장 선출과 관련해서 많은 투표를 얻기 위해 일부 대학들이 회원가입 캠페인 같은 것을 벌인 결과이기도 하다.

2005년말 현재 학회 내에는 모두 11개의 分科가 존재하는데, 이들을 나열하면, (1) 健康心理學會, (2) 發達心理學會, (3) 社會問題研究學會, (4) 社會 및 性格心理學會, (5) 産業 및 組織心理學會, (6) 相談心理學會, (7) 消費者/廣告心理學會, (8) 實驗心理學會, (9) 女性心理學會, (10) 臨床心理學會, 그리고 (11) 學校心理學會가 그들이다. 실험심리학회 안에는 生理/生物心理學, 學習心理學, 그리고 知覺心理學이 속해 있다. 이들 각각이 독자적인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고, 분과학회와 별도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이 발행되고 있다. 모든 학회지는 韓國心理學會誌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의 학회지는 “한국심

리학회지: 사회와 성격'이란 이름으로 나온다. 원래 이들 학회는 "한국심리학회 ○○○분과회"라고 불렀으나 1987년부터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란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분과학회가 보다 독자적인 행보를 취하겠다는 움직임의 표현인데, 그 결과 학회는 느슨한 연합체의 형태로 바뀌었다. 2005년 말 현재 전국에는 32개의 심리학과 또는 응용심리학과(교육, 산업, 등)가 존재한다.

12. 한국심리학이 풀어야 할 문제

현재 한국심리학계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아직도 많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學科의 零細性이다. 1996년의 조사에서 학과는 평균적으로 약 6명의 교수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후 지금까지 교수 수가 증가되기는 했지만 미국의 대학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다. 미국의 큰 심리학과들을 예로 들면(1976년 현재), UCLA 85명, Stanford 56명, SUNY-Stony Brook 52명, UC-Berkeley 45명, 그리고 Univ. of Minnesota 60명이었다. 교수 수가 많아야 학문의 심화가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에서 가장 큰 학과인 서울대 심리학과는 2005년 현재 교수 수는 12명이다.

다음은 施設의 貧困이다. 1996년 조사에서 조사된 30개의 학과 중 5개학과는 아예 실험실이 없었다. 30개학과 중 실험동물을 두고 있는 곳은 11학과로 나머지 19개학과는 실험동물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실험동물이라야 서울대 심리학과와 경우 쥐와 최근에 입수한 원숭이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1935년경 2명의 교수만이 있던 京城帝大의 심리학연구실에서는 흰쥐, 원숭이(대만 원숭이, 보루네오 원숭이), 토끼, 미꾸라지, 가물치, 거북이 등이 사육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사육하려면 상응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또 당시 이 심리학 연구실에는 독자적인 圖書室, 實驗室, 研究室, 工作室, 配電 蓄電室 등 18개의 방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防音設備이 되어 있었다. 50평 규모의 별도건물에는 映畫, 寫眞 專門技士가 자리 잡고 있는 寫眞室이 있었고, 별도로 實驗機械工作 技術者도 두고 있었다.

필자가 1996년 머물렀던 미국 서부의 어느 학생수가 6,000명인 작은 대학에도 심리학과는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갖가지 동물들(흰쥐, 골릴라, 원숭이,

물고기, 비둘기 등)이 사육되고 있었고, 물론 사람의 반응을 기록하는 장치가 있는 실험실도 구비하고 있었다. 이 학과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1명과 기계기사 1명이 직원으로 상주하면서 교수의 실험을 돕고 있었다. 기막힌 현실은 실험동물이나 보조 인력에서 2006년의 서울대 심리학과가 1930년대의 경성제대의 심리학연구실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심리학사 문헌(연대순)

- 정양은(1972), 《韓國의 學譜: 人脈으로 살펴 본 韓國의 學界 — 心理學界》, 대한일보, 1972. 6. 2~7. 4.
- 차재호(1976), “韓國心理學의 歷史, 現況 및 社會科學協同研究의 方向”, 《社會科學論文集, 1》, pp. 61-100.
- 정한택 편저(1982), 《韓國心理學 60年史》, 서울: 박영사.
- 차재호(1982), “韓國心理學會의 沿革, 한국심리학회 편, 《韓國心理學會 要覽(제1판)》, 서울: 편자.
- 차재호(1982), “韓國의 學風 學脈 11 — 心理學: 탈색된 日帝의 影響, 分裂·論爭없는 成長 期待”, 《월간조선, 11월호》, pp. 331-357.
- Cha, J.-H.(1987), Psychology in Korea. In G. H. Blowers & A. M. Turtle (Eds.), *Psychology moving East: The status of Western psychology in Asia and Oceania*, Boulder and London: Sydney University Press, pp. 163-188.
- 차재호(1987), “서울대학교 심리학의 40년”, 서울대학교 편, 《서울대학교 학문연구 40년(I)》, 서울대출판부, pp. 306-326.
- 차재호, 김영채, 오경자, 이상빈, 이정모(1990), 《심리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연구보고서(한국대학교육협의회), 89-10-65. p. 136.
- 車載浩(1992), “韓國心理學界의 現狀”, 《心理學研究(日本心理學會, 62)》, pp. 383-390.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동창회 편 (1993), 《李鎭淑 教授 心理學文集》,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比較民俗學會 편(1993), 《人間 任哲宰》, 서울: 편자.
- 이화여자대학교(1994), 《梨花 100年史》,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동창회 편(1994). 동창회 회원 명부. 서울: 편자.
- Cha, J.-H. (1994), Psychology in Korea, In Raymond J. Corsini, (Ed.), *Encyclopedia of psychology*. 2nd ed., Vol. 3., NY: Wiley, pp. 202-204.

이한우(1995) 《우리의 학맥가 학풍》, 서울: 문예출판사.

조금호(1995), 《한국사회심리학계의 연구경향》, 연변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8월 21일.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편(1995),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47년사》, 서울: 편자.

한국심리학회 편(1996). 《한국심리학회 50년사》, 서울: 교육과학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편(1999). 《이화여대 심리학과 50년. 나무에서 숲으로》, 서울: 시그마프레스.

한국심리학회 편(2000), 《한국심리학회 요람 2000》(제7편), 서울: 편자.

서명원(2005), 《徐明源回顧錄.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네!》, 서울: 정민사.

